

“밀리환초 강제동원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해야”

강제 동원 연구자 다케우치 간담회

피해자 640명 중 전남 출신 635명
숨진 조선인 인육 고래고기로 속여
집단 반발에 토벌대 대량 학살 자행
일본 학자에 의해 지난해 최초 공개
일제 시대 전남민 핍박·수탈의 증거

1945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남태평양 밀리환초에서 벌인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과 자료 전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본에서부터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숨진 조선인의 인육을 ‘고래고기’라고 속여 동료 조선인에게 식사를 배급하는 등의 일제의 만행에 견디다 못해 일으킨 조선인들의 반란으로서 이중 대다수가 전남지역 출신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제강제동원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68)씨와 함께 지난 13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에서 ‘밀리 환초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도쿄 소재 국립공문서관에서 새롭게 발굴한 남태평양 마셜제도 강제동원 명부를 공개했다.

‘밀리 환초 조선인 학살 사건’은 태평양전쟁 말 남태평양 마셜제도 밀리 환초에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 수십 명에 대한 학살 사건이다.



일제강제노역 연구자 타케우치 야스토씨가 지난 13일 광주시의회에서 밀리환초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일본은 1942년 초 전남에서 강제 동원한 조선인 800~1000여 명을 밀리 환초에 군속 신분으로 배치했고, 이들을 비행장 활주로, 탄약고, 격납고 건설 등 일본군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했다.

특히 숨진 조선인의 인육을 ‘고래고기’라고 속여 동료 조선인에게 식사로 배급하자 분노한 조선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중무장 일본군 토벌대들이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

다케우치씨 조사에 따르면 밀리환초에서 숨진 조선인 218명 중 213명이 전남지

역 거주자들이었고, 이 가운데 조선인 학살사건으로 숨진 55명도 모두 전남 연고자였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또 공개된 218명을 포함해 일본 정부가 작성한 ‘피징용 사망자 연명부’, ‘해군 군속 신상조사표’를 통해 새롭게 파악한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자 640명 명단이 드러났다. 이 중 635명 역시 전남 지역 출신이었다.

피해자들의 인적을 파악한 결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가 지난 1992년 일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남양군도 강제동원 희생자 서조왕금씨의 아들 서태석(90)씨.

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천인소송’에 참여했던 원고 23명도 포함, 이 외에도 전남 구례 등에서 형제가 함께 밀리환초 강제노역에 끌려간 일도 있었다.

명부에는 일본식으로 개명된 피해자의 이름, 번호, 동원된 날짜와 사망 날짜, 당시 탑승한 선박명, 주소, 연락처, 동원 후 받지 못한 미지급금의 액수 등이 담겼다.

이어 광 지역에 동원됐다가 숨진 조선인 96명 중에서도 75명이 전남 출신으로 확인됐다.

마셜제도 내 퀘젤린 환초 등지로 끌려간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 명부도 새롭게 확인됐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한 ‘반도공원 퀘젤린·루오트 옥쇄자 명부’를 통해 파악된 강제노역 피해자 677명 대부분이 전남, 경기, 경상도 등지에서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케우치 야스토씨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 복구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 근본이며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식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밀리환초 사건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이다.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유골 반환 등 후속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것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전남 지역에서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강제동원돼 희생됐다는 사실이 구체적 문서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제라도 진상규명과 유골 반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태평양 팔라우 남양군도 강제노역 희생자 서조왕금씨의 아들 서태석(90)씨도 “혹여 아버지의 성함이 나올까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아버지가 머나먼 외국 땅에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일본 정부를 생각하면 분노가 터진다”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광주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전세버스 투입·지하철 증편

강 시장 “노사, 타협안 합의해야”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되면서 파업 장기화가 예고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의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시민 여러분께 크고 작은 불편을 드리고 있어 매우 송구하다”며 “노사 양측은 더 큰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주시고 시민 앞에 더 이상 ‘힘겨루기’가 아닌

‘공감과 타협’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사후 조정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장기화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열린 4차 조정 회의에서 사측은 2.5% 인상안, 노측은 5% 이상 인상안을 요구했다. 지노위는 노사 간 임금 인상폭 격차가 너무 커 3% 이상안을 제시했다. 지노위 중재안을 사측은 수용했으나 노조측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강 시장은 “시는 주말에도 파업을 중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협상

에 진전이 없어 16일부터 비상수송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4시간 대책본부 운영체제 돌입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위해 도시철도 12회 증편 운행한다.

출·퇴근 시간 택시 운행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차량 부제는 해제하고 교육청 협조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전세버스를 확보해 총 20개 노선에 60여대를 투입한다.

파업 참여율이 높아 운행률이 저조한 2개 노선(순환01, 봉선37)에 16일부터 전세버스 6대를 우선 투입한다.

정שא 기자

광주·전남 오늘까지 비… 다시 ‘무더위’

최고기온 27~32도

광주·전남 지역에 비가 그치며 다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 광주·전남 지역은 최저기온 20~22도, 최고기온 25~29도로 전망된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20~6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전남 남해안 지역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화요일인 17일은 맑은 날씨가 예보됐으며 최저기온 19~21도, 최고기온 26~30

도로 평년보다 1~2도가량 높겠다.

이날 오전까지 남해서부동쪽먼바다에 순간풍속 초속 9~1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고 바다 파고가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18일 수요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최저기온 17~20도, 최고기온 27~32도로 이날 역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광주와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정준 기자

5·18 부상자회, 조규연 회장 불신임 안전 가결

선거 담합·허위 학력 의혹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임시 중앙총회를 열고 선거 담합 등 논란이 불거진 조규연 회장을 불신임했다.

15일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광

주 서구 5·18 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열린 2025 임시 중앙총회에서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전이 가결됐다.

해당 안전에는 최창수 부회장과 이사 2명도 포함돼 총 4명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총회에는 169명 중 과반이 넘는 95명이 참석했고, 90여명이 안전에 찬성했다.

불신임안에는 지난해 6월 회장 선거에 앞서 사전선거운동이 이뤄졌고, 선거관리위원 선출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조 회장의 당선이 무효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철 기자

광주 도로서 포트홀·나무 쓰러짐 사고… 인명피해 없어

주말간 호우로 인해 광주 도로 일대에 땅 꺼짐(포트홀)과 나무가 쓰러지는 등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15일 광주 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 15m 높이의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국은 복구 작업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포트홀)이 발생해

행정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전날 오후 6시15분께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한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도 포트홀이 발생했다.

꺼진 부분의 규모는 직경 1.5m, 깊이 1m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당국은 해당 도로의 통제를 제한하는 등 복구 작업을 마쳤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승우 기자

영광 한빛원전서 황산 191ℓ 누출… 인명피해 없어

지난 14일 화학물질안전원서 접수
황산저장탱크 내부서…조치 완료

전라남도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영광소방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38분께 영광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전라남도 영광군 한빛발전소 2호기에서 황산액체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21명 장비 13대를 투입해 밸브를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우 기자

이 사고로 191ℓ의 황산이 누출됐으며 외부로 확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한빛원전 소방대 등과 함께 누출된 황산을 20ℓ 용량의 통에 옮겨 담은 작업을 진행해 같은 날 오후 11시44분께 완료했다.

당국은 한빛원전 2호기 황산저장탱크 내 펌프의 연결고리에서 누출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한빛원전 2호기는 정비를 마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6월 말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었다.